

수험표 있으면 콘서트·박물관·영화·팝콘이 공짜

“수능 스트레스 한방에 날리자”

청소년 밴드 릴레이 콘서트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마련  
극장가도 시사회 등 이벤트



수능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네버마인드에서 공연할 청소년 밴드 ‘달토끼’.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흥겨운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겨보자.

◇신나는 1318 콘서트  
수능생들의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릴 청소년 밴드들의 릴레이 콘서트가 열린다.

지난 6월 열렸던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에 선정됐던 청소년 밴드들은 시하나 노래하나와 광주청소년문화의 집 등과 함께 ‘에듀포엠콘서트’를 갖는다.

지역의 음악인들을 음악적 멘토로 삼은 이들은 시 창작과정, 음악창작과정 등을 통해 노래를 직접 만들고 연주해왔으며 이번 공연에서도 다양한 창작곡을 선보인다.

지난주 중학생들로 구성된 ‘달토끼’가 첫번째 공연을 가졌고, 14일 오후 7시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는 청소년 퓨전 마당극단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나르샤밴드가 콘서트를 진행한다.

또 21일에는 광주시 동구 장동에 위치한 컬처를럼 네버마인드에서 3인조 힙합 그룹 ‘BIG MIC’이 준비한 ‘SHOW KING’ 공연이 진행된다.

한편 수능 당일인 12일 오후 7시 네버마인드에서는 ‘놀자, 오늘!’이라는 주제로 ‘달토끼’ ‘나르샤’ ‘BIG MIC’이 모두 출연하는 고 3을 위한 합동 콘서트도 열린다. 전공연 무료. 문의 062-375-1324.

◇박물관서 놀기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오는 17~12월 24일까지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서 밖의 우리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 70~300명이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어, 학교별 단체 참가 가능한 게 특징. 프로그램은 크게 ‘큐레이터와 풀어보는 강의’

‘영상교육’ ‘체험학습’으로 나뉜다. ‘큐레이터와-’는 박물관 화해사들이 강사로 나서 ▲2천년전의 신창동 ▲지석묘의 수수께끼 ▲시대를 담은 그릇, 토기 ▲고대의 장신구와 멋 ▲신윤복은 바람의 화연인가? 등을 강의한다.

‘영상교육’은 도자기, 차마고도, 신창동, 풍속화 등으로 진행된다. 또 ‘체험학습’으로 ▲깨진 그릇 붙이기 ▲나전칠기 목걸이 ▲옛책 만들기 ▲우리 문양을 담은 연필 만들기 등으로 짜였다.

전액 무료로 박물관 홈페이지(http://gwangju.museum.go.kr)나 전화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570-7053.

◇무료 영화 관람, 팝콘도 공짜  
극장가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무등시네마는 수험표를 지참한 학생들에게 1천원 할인혜택(5천원 관람)을 주고 초대권 1장도 무료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마련했다.

메가박스 광주점과 상무점은 수능생을 대상으로 ‘홍길동의 후예’ 무료 시사회를 갖는다. 상무점

은 16일 오후 7시 영화가 상영되며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메가티즌 카드와 수험표를 제시하면 티켓 2장을 무료로 증정한다.

또 12일부터 한달간 수험표를 제시하면 팝콘(소)을 무료로 증정하며 역시 한달간 영화 티켓 추첨을 통해 빅스 스테이크 시식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광주저녁 시사 ‘홍길동의 후예’ 무료 시사회를 16일 오후 7시5분에 개최하며 13일 오전 10시부터 티켓을 배부한다.

콜롬버스 상무점과 하남점도 이벤트를 준비했다. 12일부터 18일까지 수험표를 소지한 수험생은 4천원에 가격에 관람할 수 있다. 또 수능 당일에는 수험생 뿐 아니라 영화를 관람하는 중고생에게도 무료팝콘을 증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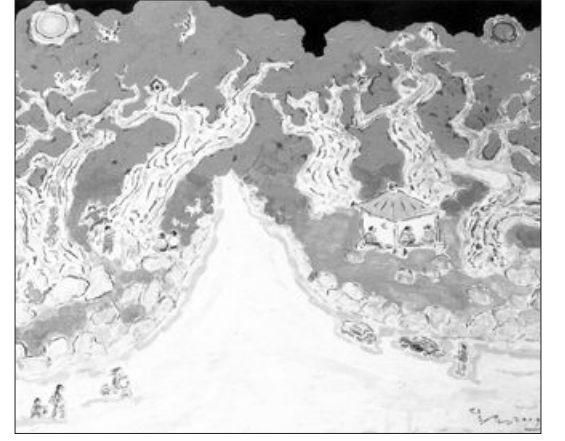
시너스 전대점은 12~13일 수험생들에게 팝콘과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14~15일에는 미니팝콘을 선물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당산나무의 아름다움 화폭에

12~18일 광주신세계갤러리 ‘설화’ 전

장현우·김해성·박태후·백준선 등 참여



송필용 작 ‘광양시 내우마을 당산’

농부의 피로를 풀어주고, 길손의 휴식처였던 남도 당산나무의 아름다움이 화폭에 담겼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12~18일까지 지역에 산재한 당산나무의 풍광을 담은 작품을 모은 ‘설화’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장현우, 김해성, 양홍길, 김상연, 김종, 박문중, 송필용, 전현숙, 윤남웅, 백준선, 김영태, 박태후씨가 참여해 광주·전남 지역을 돌며 그린 당산나무 그림을 선보인다.

박태후씨는 무성한 그늘과 시원한 휴식을 주는 순천시 승주읍 주암면 오산마을, 나주 남평읍 통사리의 당산나무를 화폭에 담았다.

또 김영태씨는 순천시 해룡면 중흥마을과 승주군 서면 비월리 덕진마을 당산나무를 영글에 담아냈고, 김상연씨는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 내백마을과 진도 조도면 옥동마을 당산나무를 생생한 필치로 묘사했다.

이 밖에 윤남웅씨는 광주시 서구 풍암동 신암마을 왕버들나무와 광양시 옥곡면 장동리 당산을, 박문중씨는 보성군 복내면 봉천리 당촌마을 당산나무를 독특한 색감으로 살려냈다.

한편 이번 전시는 무등일보가 지난 1월부터 9개월 동안 보도한 기획특집 ‘당산나무를 찾아서...’의 일환으로 열린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가을밤 재즈 선율 속으로

‘강윤숙의 재즈여행’

13일 광주문예회관

광주문예회관이 기획한 화요일에 솔무대가 흥겨운 재즈 공연을 준비했다.

‘강윤숙의 재즈여행’이 1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지난 2003년 창단후 2005년부터 매주 금요일 마다 스탠다드 재즈 콘서트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JS뮤지션 그룹 소속 뮤지션들이 꾸미는 무대다.

피아노의 강윤숙씨를 비롯해

김성광(베이스), 박수용(색소폰), 임민수(드럼), 박지우(보컬)씨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이번 공연에서는 바하의 ‘인벤션 4’, ‘가보트’ ‘프랑스 조곡’ 등 우리에게 친숙한 클래식 음악을 재즈로 편곡, 독특한 느낌을 전해 주는 곡들을 선보인다.

또 ‘East of the sun’, ‘Round midnight’ ‘Donna lee’ 등 색소폰과 어우러진 운치있는 재즈곡들도 만날 수 있으며 ‘Moon river’ 등 아름다운 음악을 만끽할 수 있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510-925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순방·서영화

피아노 듀오 콘서트

12일 유·스퀘어 문화관



박순방 교수 서영화 교수

박순방·서영화 피아노 듀오 콘서트가 12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두 사람은 이번 연주회에서 브람스의 ‘오르간 판타지와 푸가 G단조’,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비제의 ‘카르멘’, 바하의 ‘시실리아’, 리스트의 ‘헝가리 광시곡 2번’ 등을 들려준다.

제주대 음악과 교수로 재직중인 박씨는 제주 피아노학회, 아트페지오 음악감독 등을 맡아 활발한 활동중이며 서씨는 조선대 음악교육과 교수, 선 클라비어 피아노연구회장 등을 맡고 있다.

박지현·강스텔라씨가 찬조출연한다. 문의 011-9736-300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놀이패 신명 ‘다문화 가정’ 마당극

12~14일 5·18문화센터 ‘무지개 뜨는 교실’

5월 황정을 담은 ‘일어서는 사람들’,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밥이 지일어’ 등의 작품을 통해 서민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온 놀이패 ‘신명’이 이번에는 다문화로 소재로 한 마당극을 무대에 올린다. 오는 12~14일까지 5·18 기념문

화센터 무대에 오르는 마당극 ‘무지개 뜨는 교실’은 국제 결혼, 이주 노동자, 새터민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가정을 모티프로 한 작품이다. 특히 정체성 혼란을 겪는 2세대들이 겪는 상처를 세심하게 들여다봤다.

작품 속 주인공은 시골에서 전학 온 수빈, 베트남에서 시집온 수빈 엄마는 아빠 대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학생이다. 일에 바쁜 엄마 얼굴도 보기 힘든 수빈은 단짝 친구 연지, 미희랑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갖가지 일을 경험하게 된다.

한편 하늘나라 무지개 마을에서는 보라요정이 무지개를 만들지 않아

한방탕 소동이 벌어지고, 수빈이를 만나고 싶어하는 보라요정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 천사와 요정들의 신나는 프로젝트가 벌어진다.

박강의씨가 출연했으며 김호순·오숙현·지정남·정이형·백민·김정훈씨 등이 출연한다. 안무는 강혜림, 음악 편곡은 김강근씨가 맡았다.

총 4회 중 1회 공연(300석)을 객석 기부,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 원생들을 초청할 계획이다.

사람티켓 참가작이다. 문의 010-7432-311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Binh Van Real Estate' (binhvan.com) featuring a large table of real estate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price, and details.